

# Open Doors

2019. 11. Vol. 211

박해와 선교현장

**이라크** *Iraq*

오픈도어 11월 캠페인

**중동에 희망을(Hope 4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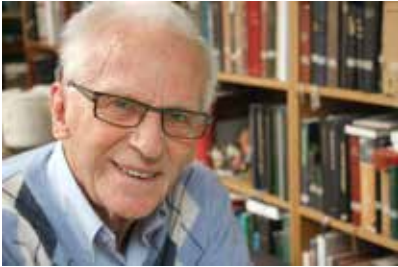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 하나님의 부르심 (3)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광대하다.  
특정한 국가나 집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계획하신다.”**

몇 년 전에 목이 아파 허브티를 마신 적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산이었는데, 차에 달리 손잡이 꼬리표에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장서지 않으면 꿈무니만 쫓게 된다.” 그리 점잖지 못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담긴 단순한 진리가 머리를 때렸다. 우리의 영적 부르심에 적용해 보았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큼 당시에도 세상은 복음에 적대적이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두 오늘날 존재하는 폐쇄 국가만큼이나 배타적인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셨다.

제자들은 개척자가 되어야 했다. 말하자면 “앞장서서” 가야만 했다. 개척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하며, 계획을 짜야 한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선교지를 찾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마다 안전할 곳을 선호한다면, 우리는 옛 생각의 꿈무니만 쫓아다니며 똑 같은 일만 똑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가 요원해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서 받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

다”(요 4:35). 농부가 한 해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결코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다. 농사일은 과학이다. 땅을 일구고 추수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만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눈을 들어서 받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중국으로 보아라. 이슬람 세계를 보아라. 쿠바를 보아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보아라.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웃, 학교를 보아라. 모두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첫째 단계에 있는 예언적 말씀을 받고 실천에 옮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다.”(요 4:38). 우리는 교회에서 씨를 뿌리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 추수하라는 말만 나오면 온갖 경건한 어투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저의 사명은 다른 데 있습니다.” “추수는 성령님의 일이잖아요.” 이러한 외중에도 세상은 그토록 애타게, 그토록 간절히, 다 준비된 상태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 CONTENTS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 XVII

**06** 박해와 선교 현장  
이라크(Iraq)

**10**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스토리  
여러분은 시리아에 살고 있는 12,000 이상의 가정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13** 사건과 소식

**14** 2019년 박해 지도

**16**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사역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기슭에서 희망이 어떻게 소생되었는가

**21** 오픈도어 박해퍼즐

**22** 2020 머스카슬론(MUSKATHLON)

**23**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OpenDoors** 2019년 11월호 | 통권 211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근,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 \_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체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나의 출애굽기 XVII

드보라

우리는 한 주에 한번씩 탈북자 집사님 집에 모여서 성경공부를 했다. 매 주마다 조선족 선생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성경 필사는 집에서 해오는데 한 달에 한 번 걷어서 필사한 장수대로 1원씩 지원을 받았다. 짬짬이 십자수하는 것도 배웠다. 십자수를 가지고 주기도문, 예수님 초상화, 십자가 악세서리 등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면 집사님과 조선족 김선생님께서 대신 팔아주시고 판 금액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대부분 못사는 집에 팔려가기 때문에 생활 형편이 매우 열악했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집사님과 선생님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시내에 나와서도 생계를 위해 부지런히 일했다. 낮에는 유치원에서 아기 보는 일을 했다. 병아리반 영아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 기저기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웠다.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는 짬을 내어 십자수를 만들었다. 밤에는 야시장에서 설거지와 배달 등 허드렛

일을 밤 11시까지 했다. 중국에서는 탈북자 신분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정체를 숨기고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에 불을 켜놓고 성경 필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다가 3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마침 애기 아버지도 농한기 때는 고향에서 나와서 나와 딸이 있는 시내에서 지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내가 밤에 성경을 필사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불 끄라고 난리였다. 나는 이제 다 가계에 보탬이 되는 거라고 남편을 억박지르고 계속 성경을 필사했다.

이렇게 한동안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 하루는 원장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원장실 자리에 앉으니 원장선생님은 대뜸 나에게 “북한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다. 내 정체가 들키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해가 되어 유치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새 아이들을 받는데 내가 살던 마을 인근의 사람이 자기 손녀를 데리고 유치원 입학시키러 왔다가 나를 발견하고 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원장 선생님은 “탈북자를 불법 고용하면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면서 나에게 출근 못할 것 같다고 하셨다. 일을 못해서 해고당하는 거라면 납득을 하겠지만 단지 신분 문제라고 생각하니 억울했다. 유치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나는 식당에서 잡부 일을 시작했다. 조개구이 집이었다. 월급을 유치원보다 오히려 많이 줘서 나는 차라리 잘되었다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



중국 개봉의 야시장 모습



데 이번에는 남편이 말썽이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나를 믿지 못해서 자꾸 이상한 트집을 잡았다. 이전에 유치원에서 일을 할 때도 직원 회식이 있거나 해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니 남자 데리고 술 먹었지” 하고 트집을 잡았다. 여자가 대부분인 유치원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그때는 무시했고, 남편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더 의심하진 않았다.

그런데 조개구이집은 원래 술 먹는 식당이고 남자도 많으니까 남편이 매일같이 의심을 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오늘은 누구랑 술 먹었냐?” 라고 시비를 걸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 어디 술을 먹고 일을 하겠냐면서 작작좀 하라고 대꾸했지만 남편은 내 말은 못믿겠다는 듯 계속해서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심지어는 내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 와서 멀리서 나를 지켜보며 감시하기도 했다. 나중에서야 남편의 감시를 알게 된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던 남편과의 관계는 결국 화를 불러오고 말았다. 하루는 남편의 큰조카 부부가 집에 놀러왔다.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자 남편은 조카 부부 앞에서 나를 욕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내가 해명



을 해도 나를 못된 여자로 몰아세우는 그이 앞에서, 또 아무도 없을 때도 아니고 하필 조카들이 찾아온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욕을 들으니 너무 수치스러웠다.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더 흥분하게 되고 상황이 험악해졌다. 그간 쌓인 억울함이 폭발하면서 술기운에 약이 받혀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바퀴벌레 약을 입에 털어넣고 말았다. 조그만 통에 쌀알 같이 담긴, 벌레가 나올만한 길목에 뿌리는 약인데 아주 독한 독약에 가까웠다.

그리고는 5분 정도 지났을까? 나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희미해진 의식 가운데 조카들은 안절부절 못하는데 남편은 “내비뒤라 저거 쇼하는 거다”하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렸다. 남편의 매정한 말이 귀에 들려오자 너무 화가나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는 무작정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 아저씨는 입에 거품을 문 사람이 형크러진 머리로 택시를 타니 너무 놀라셨다. 택시는 탔지만 내가 갈 만한 곳은 집사님 댁뿐이었다.

택시 타고 집사님 댁에 갔다.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자마자 나는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었다. 집사님은 나를 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다. 집사님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나를 보고는 손가락 넣어서 먹은 것을 토하게 하고 사탕가루 물을 먹여가며 나를 살린 것이다. 정신이 든 나를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며 울먹이며 물어보셨다. 나는 자초지종 설명했다. 당분간 집사님 댁에 신세를 지기로 했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이라크

# Iraq



인구: 39,340,000명

기독교 인구: 225,000명(0.6%)

박해정도: 2019 세계 박해 보고서 13위

수도: 바그다드(Baghdad)

주 박해 요인: 이슬람, 독재 탄압, 종교 민족주의, 부패와 범죄

보고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이라크는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서 79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7점이 감소한 점수이며 조사 대상국 중 13위에 올랐다.

## 1. 박해의 유형

**이슬람의 압박:** 과격파 이슬람 그룹은 이라크를 완전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반서구적 요소, 곧 기독교는 높은 수준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다.

**종족 간의 갈등:** 종족과 부족은 삶의 원칙을 내포하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모든 아랍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종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납치, 인질 그리고 불법적 기독교인들의 재산의 점유는 일반화되어 있다. 부패는 사

회의 모든 영역에서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정권의 탄압:** 정치 지도자들은 다원화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이러한 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2. 박해의 주된 동력

IS와 같은 폭력적 종교 그룹은 납치와 살인을 통해서 소수 종교의 종족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S가 비록 이라크에서 많은 영토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과 입장은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IS 군인들은 일반 시민들 가운데로 스며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 박해에 대한 또 다른 동력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Shia) 무장군인 세력이다. IS 지도자들은 모스크에서 반기독교적 적대감을 설파하며 모든 영역에서 더 강력한 박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관료들도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협박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이라크를 떠나도록 자극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기독교 박해에 공헌하고 있다.

종족의 지도자와 대가족의 사회 그리고 보통 시민들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압력과 폭력을 행사하며 또한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독교 교단의 등록이 저지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 종교적 이익을 목표로 조직된 범죄 집단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납치를 저지르기도 한다.

### 3. 박해의 결과

동방의 앗시리안 교회인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가톨릭교회, 칼덴(Chaldean) 가톨릭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등은 광적인 이슬람 운동에 의해 심각한 박해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들은 정부관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중앙과 남부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



와 같은 공공연히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밝히는 기독교 상징물을 휴대하고 다닐 수 없다. 십자가 목걸이 등을 하게 되면 검문소나 대학, 직장과 정부의 공공건물에서 학대와 차별을 당하게 된다. 이라크의 쿠르드족 점령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지 못한다. 몇 년 전에 가톨릭교회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협박으로 인해 신학교를 폐쇄해야 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떠날 것을 강요당했다.

바그다드와 바스라(Basra) 지역의 복음주의교회, 침례교회 그리고 오순절교회들은 광적인 이슬람 운동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규칙적으로 당국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신자들은 중앙과 남부 이라크에서 지속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면 신성모독죄가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은 확대가족으로부터 최고수준의 압력을 경험하며, 가족과 종족의 지도자 그리고 사회에서 오는 협박을 피하기 위해 신자임을 감춘다. 개종자들은 재산상속권, 결혼의 권리 등을 잃을 위험을 무릅쓴다. 공개적으로 이슬람을 버리게 되면 국가 전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라크	WWL 2019	WWL 2018
보고 기간	2017.11.01 - 2018.10.31	2016.11.01 - 2017.10.31
사망한 기독교인	5	3
공격 당한 기독교인	68	104
체포 당한 기독교인	14	3
공격 당한 교회	3	10
공격 당한 기독교인 자산	10	6000



#### 4. 박해 사례

- 다섯 명의 기독교인들인 “2019년 세계기독교 박해 보고서”에서 신앙과 관련하여 희생되었다. 2018년 3월 8일 바그다드에서 어느 기독교인 의사는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칼에 찔려 희생되었다. 같은 달에 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반기독교 세력인 지역 경찰이 개입한 사건이었다. 또한 2018년 9월 어느 개종자는 자신의 개종을 알아차린 장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 12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전도를 하는 동안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 대략 48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상황에서 실종

상태이다. 또한 IS가 점령했던 카라코쉬(Qaraqosh) 지역에서 60명의 기독교인들이 실종되었다. 이들 가운데 단지 12명이 귀환했다. 카라코쉬 지역의 기독교 여성들은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으며 시아파 무장군인들로 부터 공격을 받았다.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기독교인들인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으며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 세 개의 교회와 기독교 빌딩이 공격을 받았다. 2017년 11월 말에 한 기독교인 묘지는 파헤쳐졌으며 인쉬케(Inshke) 마을의 기독교 학교는 약탈을 당했다. 2018년 7월에 이라크 군정보 당국은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기독교 마을이 있는 바르텔라(Bartella)의 성조르기스교회(St. Gorgis Church)를 습격했다.
- 몇몇 기독교인 소유의 주택들이 약탈과 소유권을 박탈당했다. 2018년 11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최소 IS 공격을 피해 피난한 최소 350 기독교인 소유 가정이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점거되었고, 피난한 기간을 이용하여 불법적 문서들을 이용하여 피난한 기독교인들의 재점유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 사건과 인터뷰 1

## 이라크 내 기독교인 인종청소

팀 스탠리(Tim Stanely) 박사는 지난 7월 9일 화요일 영국 의회에서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서방세계로부터 원하는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인종청소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탠리는 이날 행사에서 영국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회”(Henry Jackson Society)가 주최한 '기독교 소수민족 학살'에 대해 "기독교의 인종청소인 이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지 않으면 IS와 다른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S가 이 지역에서 퇴각한 이후 실향민 이라크인들은 서서히 그들의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계속 공포에 떨고 있으며, 계속해서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IS 전사들의 포탄은 여전히 날아들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 몇 주 동





안 이라크 북부에서 수백 에이커의 토지와 농작물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유엔은 이라크에서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IS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과 전쟁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유엔은 시민사회 단체와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회원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을 집단학살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왔다.



## 사건과 인터뷰 2

# 이라크 기독교 인수의 감소

IS가 3년간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Mosul)과 주변 마을을 점령하면서 이곳의 기독교 신자들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지난 달,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IS의 근거지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모술 주변의 50개 마을 주민들을 무장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IS군인들은 모술 남동쪽 184km에 있는 키르쿠크(Kirkuk)의 시장 같은 지역 목표물을 공격하는 '뺑소니'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바그다드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IS는 또한 최근 몇 주 동안 이라크 북부 수백 에이커의 "불신자들의 소유"라고 말하는 토지의 농작물을 방화로 파괴했다.

여기에 IS 점령 이전까지 이어진 종파 간의 긴장도 고개를 들었고 있다. 시민군대(Popular Mobilization Force)로 알려진 이란 지원 민병대가 거리를 순찰하고 때로는 마을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과 위협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와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2003년 사담 후세인 몰락 이후 14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존재했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라크에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의 추정치는 20만에서 25만까지 다양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아니더라도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이라크의 기독교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에르빌(Erbil) 대주교 바샤르 와르다(Bashar Warda) 목

사는 지난 달 영국을 방문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1,400년간의 박해 끝에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소멸하는 위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고향으로 귀환을 결정한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주택과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IS 조직이나 종파 민병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우린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스토리

### 스토리 1

여러분은 시리아에 살고 있는  
12,000 이상의 가정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 1분기 동안 시리아에 있는 1만 2천 가구 이상의 가족을 식량 패키지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신실한 지원 덕에 우리는 이 가구들에게 지역 교회를 통해 분배된 음식을 권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오픈도어의 스태프 매튜가 알레포의 한 식품유통센터를 방문했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건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계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도에 들어서게 되면 적어도 30명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 꾸러미가 뒷 모퉁이에 파란색 비닐봉지 안에 쌓여있고,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는 두 개의 테

이블과 그 뒤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알레포에 있는 연합교회에서 음식을 배포하는 날입니다. 시리아 전역 25개 교회 중 하나인데,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기부자들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량 배급은 중립 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배급하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건물에서 배급하는 이유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기독교인 사람 모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약 1,400 가구에 배포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여러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이 단시간에 저희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식





량에 대한 재정지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수가 줄어든 겁니다."

압달라 목사는 축소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물 소포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수궁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화가 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지원의 축소가 있을 때 소득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팀이 일주일에 5일 동안 음식을 분배하는 것을 돕지만, 교회는 단지 음식 이상의 것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리아는 배급에 책임이 있는 자원 봉사 단체의 일원입니다. "많은 경우 약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고 나서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약국에서 사려고 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총 13개의 오픈도어 "희망의 센터"는 식량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모든 도움은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 예배에 초대합니다. 보통 우리는 50명 정도를 초대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그들에게 음료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그들이 배급에서 식량이나 의료지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스토리 2

## 바그다드의 기독교인들

**모든** 목사들과 신자들은 삶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운명공동체임을 알고 있다. 폭격은 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아프람(Afram) 사제는 말한다.

"여기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폭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한 박해도 그러합니다. 바그다드에서 안전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버텨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



으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이곳 모든 이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다.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교회의 그룹으로서 궁극적 힘과 원천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한다. 힘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어떤 교회는 약 45%의 신자들이 무슬림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다. 또한 많은 무슬림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찾

아온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고 있으며, 사랑과 지원을 베푸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많은 무슬림들이 바그다드로 몰려오고 있으며 "희망의 센터"는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오는 무슬림들은 이 지역 교회의 희망이며, 오랜 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사건과 소식

##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강경파와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급진 이슬람 단체들이 대학교에서 그들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급진화가 교수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으며, 당국은 IS와 같은 급진주의 단체들이 대학교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념을 전파하고 새로운 병사들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했다.

전 세계 지하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IS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보안 관계자들로부터 더욱더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자체에 지속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탈레반 강경파 이슬람 단체이다. BBC에 따르면 8월 7일 수요일 카불의 한 경찰서 밖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적어도 15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쳤다.

## 인도(India)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의회는 금요일에 강제적인 개종(改宗)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히마찰 프라데시 종교 자유 법안을 지지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달릿(Dalits) 즉 여성 또는 미성년자가 개종하게 되면 징역 27년을 선고받는다. 법안의 10 절에는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기부금이나 성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나이지리아(Nigeria)

2013년부터 현재까지 22,000명의 나이지리아인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실종 사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 당시 미성년자들

이었는데, 이는 수천 명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생사조차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 마우러 ICRC 회장은 이날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며 "모든 부모의 최악의 악몽은 자식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수천 명의 나이지리아 부모들에게 비극적인 현실이고 이들은 지속적인 수색에 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ICRC 직원들에 따르면 실종자들은 주로 보코하람이나 풀라니 목동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다 종종 분리된다. 다른 이들은 납치되거나 구금당한 이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 ICRC는 사진과 이름을 이용해 캠프와 지역사회를 방문하며 실종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 베트남(Vietnam)

베트남의 북부 지방인 톤(Thinh)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신자들 중에서도 새롭게 믿게 되는 신자들은 자신들의 가족, 그들의 공동체, 지방 당국, 또는 이 세 가지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 이 지방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한 종족에 속해 있다. 부족 구성원들은 전통적으로 동물이나 그들의 조상을 숭배하지만, 누군가 조상신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외톨이가 되어 새로운 신앙을 부정하지 않는 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

칸(Canh)의 부모님은 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칸에게 그의 믿음을 버리고 전통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게는 결정하기 위한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칸은 부모님의 신들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숭배하기로 결정했다. 즉시 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마을 촌장에 의해 마을에서 추방되었고, 입고 있었던 옷 외에는 소지품을 가지고 올 수 없었다. 그들은 재산도 몰수당하였다. 그들은 목사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 오픈도어 강의를 신청해주세요

## 강의 주제

- ▶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실상
- ▶ 북한 기독교인 간증
- ▶ 월남 기독교의 유산과 북한교회
- ▶ 기타

세계 박해와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 교회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의 요청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에서 상단 '요청하기' 클릭  
전화: 02) 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 한국 오픈도어 정기후원 안내

소식지 신청 ( )		300기도용사 신청 ( )		
지 역	선 택	사 역	선 택	후원금액
북한		성경배달		
중앙아시아		제자훈련		
아시아		사회경제 지원		
중동		어린이와 청소년		
아프리카		여성과 치유		
라틴 아메리카		난민과 변호		
이 름			전화번호	
이 메 일			출 금 일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주 소				
은 행	은 행 계 좌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 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사역

### 사역 1

##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가슥에서 희망이 어떻게 소생되었는가

**유럽**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라파엘(Rafael)과 그의 가족들은 네덜란드 거주 비자를 받지 못해서 이라크의 티그리스강 주변 아주 작은 마을로 되돌아갔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티그리스강은 한 때 에텐 동산이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지금 나는 에텐동산 한 가운데 플라스틱 비닐 아래 서서 이라크에서 희망이 어떻게 소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라파엘(Rafael)을 만난다.



자연과 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딱새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되어 나의 하루는 정말 완벽했다. 특별히 이렇게 다채로운 색의 새를 보는 것은 마치 천국과 같은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이 곳은 완전한 고요함 속에 있다. 여섯 가정만 바클로자(Bakhloja)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 마을에 있는 37 채의 집들은 서구로 다른 인생을 찾아 떠난 가족들에 의해 버려졌다.

빨간 폴로셔츠에 파란 체크무늬 바지를 입은 라파엘(Rafael)은 깊은 고무 부츠를 신었다. 지난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린 탓이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강에서 물을 얻어 쓰죠. 비가 많이 오면 너무 진흙이 많아져서 온실에서 사용될 수 없어요.” 이라크의 수 백 명의 가족들과 같이 그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가능하게 된 소액 용자로부터 수혜를 받았다. 우리 현지 사역자는 라파엘이 다니는 현지 교회에 미화 8,000달러를 보조했고, 교회를 위해 미화 4,000달러를 더 보조해주었다.



35살의 라파엘은 그의 땅에 온실을 만들고 토양을 준비하고 그가 온실에서 키우는 호박 씨를 살 수 있었다. 그는 온실에 들어가 꽃들을 확인한다. “우리는 8월에 약 150-200킬로그램을 수확할 거예요. 온실이 있어서 우리는 정상적인 토양에서의 수확보다 더 빨리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판매 가격이 더 높을 거라는 뜻이죠.”

그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해예요. 첫 해에는 오이를 키웠고,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오이를 수확하고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이 충분하지 않았죠. 저에게는 두 아이와 아내와 장모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요. 이 번 작물로 삶이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해요.”

호박을 수확하기 전 아직 몇 달의 시간이 남았다. 노란 호박 꽃은 아주 조짐이 좋아 보인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한다. “직원 두 명을 불러서 온실 안 잡초 제거 작업을 해야겠어요.” 농부에게는 늘 할 일이 있다. 그는 언덕을 올라 다시 집으로 걸어간다. 그는 부츠를 신고 진흙탕인 길을 쉽게 걸어간다. 나는 부츠를 신지 않아 아주 힘겹게 그를 따라간다.

오픈도어 현지사역자와 현지교회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200개 이상의 소액 융자 프로젝트를 투자할 수 있었다. “약 80%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수혜자들이 2년의 약정시간 후에 대출을 갚아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몇몇은 대출 상황을 연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상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 10%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멈춰버렸습니다.” 우리의 협력기관의 소액 융자와 보조금 코디네이터, 나지브(Najib)가 말한다.





## 사역 2

# 소액대출로 이라크 가정에게 희망과 삶의 기회를 제공하다

**저는** 소액대출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방문하기 위해 왔다. 농업 분야를 통해 우리는 이라크 북부의 작은 마을들에 도착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20~50 가구가 사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불과 넉 달 전에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농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정부가 우리가 그들에게 판 수확에 대한 대금을 주지 않아서 다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처음엔 양

과 염소를 25마리, 나중에는 10마리를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끼 양 열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유를 팔고, 그 돈으로 우리는 음식을 사고 다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충분할 것입니다.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양떼를 가진 또 다른 농부 에드몽가 살고 있다.





“소액대출로 저는 양 22마리를 샀습니다. 나는 이 숫자를 50마리로 배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으로 나는 새 축사를 세웠습니다. 지금 나는 150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에는 보통 겨울에 비가 옵니다. 11월 초에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밭을 다시 초록색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대가족은 내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양떼가 없다면 이곳 생활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사역자들은 대출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이라크 북부와 쿠르드 지역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제때 갚고 그 돈은 새로운 소액 대출에 사용될 수 있다. 후보를 아주 잘 선정하며 정말로 그들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한다. 현장사역자들은 후보자들과 그들의 계획을 신뢰한다. 한 사역자는 22개의 소액대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양한 교회의 기독교인들이며, 대출은 대출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2년에서 3년 사이에 상환한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2019 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북한 캠페인

북한에 복음과 떡을 보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어린이 및 청소년 캠페인

박해의 희생양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봅니다.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김성태(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중동에 희망을”(Hope 4 ME) 캠페인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여성 사역 캠페인

박해로 남겨진 여성들을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오픈도어 사무실을 후원해주세요



선교회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지 역: 서울 및 인근지역

기 간: 5년



선교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700백만원

은 행: 신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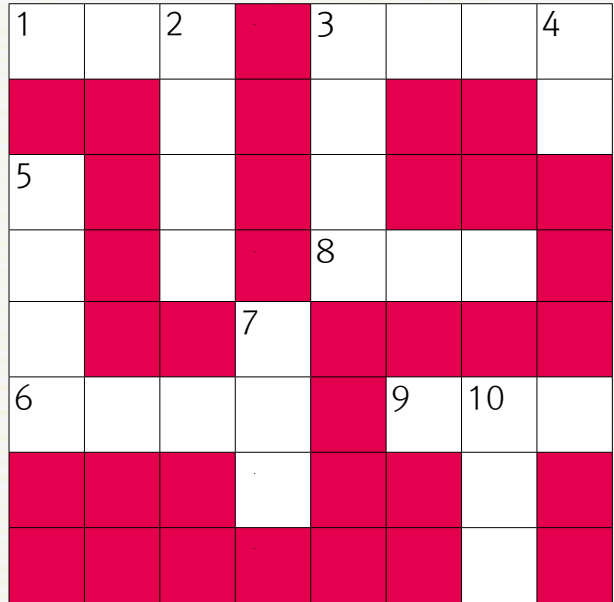
계 좌: 100-027-607588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오픈도어박해퍼즐

## 11월호



### 가로열쇠

1. '암사슴'이라는 뜻. 구제와 봉사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읍바에 사는 여인. 병들어 죽었으나 사도 베드로에 의해 소생하였다.
3. '도움의 돌'이란 뜻.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후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 후에는 그곳이 지명이 되었다.
6. 골로새인 빌레몬의 종으로 주인에게 죄를 짓고 로마에 도망하여 있는 중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신자가 되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와 이 사람편에 보내었다. (골 4:7-9)
8.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은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기적적인 사건이다.
9. '창을 가진 자'란 뜻. 본명은 '본디오 ○○ ○' (Pontius Pilate).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 죄를 씌워 사형을 집행한 유대 주재 로마 제5대 총독.

### 세로열쇠

2.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리 마태는 이곳 세관에서 제자로 부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마 8:5-13),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마 8:14-15), 들것에 실려 온 중풍병자(막 2:1-12) 등을 치유하신 사건이 유명하다.
3. '사랑하는 자'라는 뜻.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렀을 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에 파견했었던 바울의 동역자(행 19:22). 그후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딤후 4:20)
4.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의 뜻을 지닌 히브리어. 구약성서 시편에서는 71회나 사용된 음악적 용어이다.
5. 디매오의 아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여리고 출신의 맹인 거지(막10:46-52)
7.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란 뜻.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동역자로 발탁된 루스드라 출신의 교회 지도자이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신앙을 배웠다.
10. 2019 기독교박해 19위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며, 이 곳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낙인 찍혀 당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 시간당 정답 ■

선			머	스	카	슬	론
교							
대		초			마	리	아
회	당	장			라		비
				아	나	니	아
사	닥	다	리		타		달
사			비				
기			아	가	페		

### 10월호 당첨자

이건\* (4795), 김호\* (4874), 권윤\* (0366)님, 축하합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19년 11월 10일)



**2020**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20년 4월**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6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이슬람 무장세력(Islamic States)으로 황폐화된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희망의 센터”(Center of Hope)와 함께해주세요.

“희망의 센터”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희망을 재건합니다.

교회의 재건 및 제자훈련

전도 및 지역사회 재건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